

광주·전남 벼 재배면적 1만6345ha 줄여 쌀값 하락 막는다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광주 514ha·전남 1만5831ha 전략작물 직불제·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정부가 지난 5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벼 재배면적(8만ha) 감축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전남의 경우 벼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면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9일 농식품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설명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 시·군 단위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벼 재배면적 조정 유형별 세부이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지난 4일 공식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감축할 벼 재배면적과 벼 면적 감축 농가를 위한 작물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세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 514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의 경우 벼 재배 농가 수·면적 등이 적어 조정할 여지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쌀 재배면적을 보유한 전남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 감축에 따른 반발이 큰 편이다.

전남에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1만5831ha를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남이 2184.6ha로 감축면적이 가장 넓었고, 영암(1573.6ha), 고흥(1378.3ha), 나주(1342.9ha), 영광(1082.0ha)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농식품

부의 발표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당장,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까지 22개 시·군의 벼 감축 면적을 받아본 뒤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인센티브를 내세워 수십년 간 이어온 벼 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사리 가능하겠냐는 곤혹스러움이 팽배하다.

그나마 올해 예산에 농가 지원사업 및 지역농협·RPC 등을 편성한 것 외에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담긴 인센티브안을 추진할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남 자치단체들 하소연이다.

전남도는 일단,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논타작물 사업비, 기계장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전략작물 직불제, 친환경인증면적 20% 감축 인정, 농지전용, 자율감축,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가 아닌 다른 작물 농사를 지으면 벼를 재배했을 때와의 차이만큼 지자체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전남도의 경우 깨와 옥수수 1ha 당 100만원, 논콩과 가루쌀은 1ha 당 200만원, 조사료는 1ha 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보장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를 추가 매입하는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농식품

■ '벼 재배면적' 시군별 예상 조정 면적

지역	조정면적	지역	조정면적
목포	5.8	장흥	762.6
여수	149.9	강진	999.7
순천	504.5	해남	2184.6
나주	1342.9	영암	1573.6
광양	135.4	무안	772.1
담양	538.9	함평	714.9
곡성	307.9	영광	1082.0
구례	236.8	장성	474.1
고흥	1378.3	완도	187.4
보성	927.5	진도	462.6
화순	452.7	신안	637.6

전남도는 지난해 감축한 벼 재배면적 1ha에 논공을 재배하면 공공비축미 150포 매입, 옥수수와 깨·조사료 등을 재배 시 1ha 당 공공비축미 300포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지역 농업법인 및 지역 농가에 3~8억 이내(자부담10~20%)의 지원금을 제공,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다른 작물을 심어 재배할 때 1ha 당 도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대 형성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감축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아 전남도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감축 면적이 달성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흑염소 뜯다는데...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도의회, 농가 관계자 등 간담회

흑염소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라.

전남도의회들이 최근 화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흑염소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은 전국 흑염소 사육두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화순에서 흑염소 농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가의 당면한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공을 쏟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흑염소 사양·질병 관리에 관한 연구와 매뉴얼 부족 ▲체계적인 도축·유통 체계 구축 ▲사육 농가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농민

들이 많았다.

농가 대표들은 "흑염소 축종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염소 경매장으로 우시장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가족전염병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문수(민중·신안 1)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흑염소 산업은 개 식용 금지법 이슈와 맞물려 귀농인이나 처음 축산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등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농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전남 축산업의 대표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간담회를 계기로 청취한 현안 장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농기원, 올해 농업 신기술 보급에 469억원 투입

이상기상 선제적 대응 등 집중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농업 신기술보급 159개 사업에 469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재해와 병해충 피해 예방에 111억원을 투입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이상기상과 병해충 발

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비로 7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벼멸구, 과수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 저기 방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수를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산물 예방을 위한 파쇄지원단 운영을 원활히 추진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업용 운반 로봇과 방제 로봇의 시범 운영, ICT·데이터 기반의 작물 생산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해 농업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올해 신기술 보급사업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보급 70개소 72억원 ▲원예작물 지역 소득 작목 육성과 우수품종 보급 134개소 169억원 ▲축산기술 분야 106개소 85억원 ▲전남 치유농업 센터 건립 및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83개소 32억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01@

농협전남본부, 3년 연속 지도사업 종합평가 1위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2024년도 지도사업 종합평가' (지역본부 부문)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농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는 흥양농협, 광양농협, 나주배원예농협이 전국 1위를 달성했고

팔영농협 전국 2위, 녹동농협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농촌복지 부문평가에서는 영암농협이 전국 1위를 수상했다.

지도사업 종합평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교육, 영농인력공급, 농업인 실의지원, 농업인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는 지도사업 40여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전남농협은 취약농가 맞춤형 농촌복지 증진사업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농업·농촌·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농촌 인구 유입 위해 '학교 교육' 살려야

KREI, 농촌정책 전환 발표

마을활동·노인돌봄 등 토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가 사라지면서 고향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농촌을 찾은 젊은 부부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가 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 인구도 감소하는 점에 주목,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집단별 농촌의 저출생·초고령화·인구감소 등에 대한 토론 결과, '학교 교육'을 주제로 한 토론이 74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을활동(72회), 노인돌봄(59회),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일상생활 소비(57회), 농업(53회) 대중교통(50회)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1519개의 초등학교가 폐교됐다. 지

난 2010년 이후로는 431개가 폐교됐다. 지난 2010~2014년에는 농촌 소재 초등학교가 58개 문을 닫았고 2020~2024년 사이에는 221개가 문을 닫는 등 폐교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인구유입 효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초등학교가 있는 면과 없는 면의 평균 인구 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10대 미만(71.1명), 10대(99.6명), 20대(127.9명) 등 젊은 세대의 숫자가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10대 미만(22.7명), 10대(32.9명), 20대(55.7명) 등 학교가 있는 지역의 2~3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학령인구의 부모세대인 30~40대 인구 비중 역시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2배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가 있는 면과 지역 농촌의 폐교 이후 전입자 수 역시 초등학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2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등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정량성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대표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